

‘미군 오폭’ 곡계굴 희생자 위로

천태종·단양군 구립 27일 구인사서 첫 합동 천도제

천태종과 단양군이 한국전쟁 당시 미군 폭격으로 억울하게 숨진 영춘 곡계굴 희생자들의 영령을 위로하는 천도위령대제를 열고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천태종(총무원장 춘광)과 단양군(군수 류한우)은 구립 27일 구인사 설법보전서 단양 곡계굴 참사 희생자 천도위령대제를 봉행했다. 이번 천도제는 천태종과 단양군이 희생자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한편 유족들을 위로하고 단양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단양 곡계굴 참사는 1951년 1월 20일(음력 12월 12일), 한국전쟁 당시 단양 영춘면 곡계굴로 피신한 주민들과 피난민을 북한군으로 오인, 미 공군 전투기 4대가 폭탄 투하와 기총사격을 가해 약 360명을 희생시킨 사건이다.

천태종 스님들과 희생자대책위원회, 단양군은 매년 음력 12월 12일에 곡계굴 앞에서 희생자 합동위령제를 약식으로 지내왔으나 3시간 이상의 정식 천도제로 법당에서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천도제 봉행에 앞서 조병규 희생자대책위원회 대표는 “매해 합동위령제를

지내왔고 그때마다 구인사 스님들께서 동참하셨다. 이번에 특별히 천태종서 뜻을 모아 구인사에서 정성으로 천도제를 지내주시니 유족들을 대표해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이날 천도제는 천태종 스님들과 희생자 유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련 △대령, 관육 △신중작법 △사성례 △상주권공(천수경, 복정계, 다계) △삼보통칭 △지장칭 △중단퇴공 △관음시식 △소대(회향) 순으로 열렸다.

한편 단양 곡계굴 참사는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로부터 172명에 대해 진실규명을 확정 받았으나 아직 후속조치가 미미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조병규 대표는 “구인사에서 봉행해 주신 이번 천도제는 무관심한 정부가 곡계굴 참사에 대한 현 상황을 인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아직 연구자를 찾지 못한 200여 명은 단체로 매립돼 있어 안치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현재 관련 특별법을 국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이며, 2008년에 정부로부터 인준받은 172명에 대한 보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천태종과 단양군은 구립 27일 구인사 설법보전서 단양 곡계굴 참사 희생자 천도위령대제를 봉행했다.

불교 종립대학 정시모집 성황 이뤄

동국대 4.93:1, 금강대 불교학부 3.5:1

불교계 각 종립대학들이 정시모집에 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동국대는 전체 1374명 모집 중 677명이 지원해 최종 4.9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경쟁률 4.74대 1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가장 경쟁률이 높은 학과는 연극학부로 28.2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일반전형 외에 농어촌, 특성화고교졸신자, 특수교육대상자, 특성화고졸 등 재직자전형은 57명 모집에 245명이 지원, 4.3대 1의 경쟁률을 마감했다.

동국대 측은 “현재 학교가 진행하는

다양한 특성화 교육이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평가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도 정시 경쟁률 4.45대 1의 경쟁을 보였다. 773명 모집에 3,435명이 지원한 것이다. 한의예과가 23.2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금강대는 평균 0.4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불교문화학부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경쟁률이 상승한 것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과거사 정리·성찰 본격 ‘START’

사부대중위, 구립 28일 ‘50년사 성찰’ 세미나

조계종의 근현대 200년의 역사에 대한 성찰을 통한 과거사 정리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조계종 종단화합과 개혁을 위한 사부대중위원회(공동위원장 도범, 이하 사부대중위)’는 구립 28일 전법회관에서 ‘조계종단 50년의 성찰과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9월 종령 기구로 출발한 사부대중위가 처음으로 개최한 공개 세미나로 향후 과거사 정리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조성택 고려대 교수는 조계종사를 시대별로 구분하고 변화상을 분석했다. 조 교수는 조계종사를 △1895년~1945년 방황과 모색의 시기 △1945년~1960년대 종단 정체성 확립 시기 △1970년대~1980년대 권력 예측의 시기 △1990년대 이후 등으로 구분했다.

조 교수는 “한국불교는 한반도에 불교가 전래된 이래, 조선조 500년을 제외하면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위기상황이 지난 100년간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형성되어온 것이어서 체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만성화되어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광복 이후 봉암사 결사에 대해서는 공

정과 부정의 평가를 동시에 내렸다. 조선 500년간의 침체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친 이후 근대화 과정에서 불교의 방향을 종식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봉암사 결사이지만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확고한 기준이 반대로 다른 발전 가능성을 차단하는 요인이 됐다는 것이다.

또한 1954년부터 이어진 비구·대처간 분규 또한 통합종단 조계종의 출범으

로 조성택 교수 “자성 관점서 살펴야” 노력 있었으나 근본적 개혁은 안돼 종단 과거사 정리 원칙도 첫 공개 ‘종단 발자취 비판·성찰’ 주요 관점

로 막을 내렸지만 종단 분규에 조직적 폭력과 정치권력이 개입하는 후유증을 낳았다고 분석했다. 1990년대에는 불교의 변화를 바라는 출세가지자들의 노력이 이어졌지만 근본적인 개혁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게 조 교수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지난 100년간 식민지와 분단, 전쟁, 혁명, 쿠데타, 산업화, 민주화 등 어렵고 힘든 역사의 과정에서



‘조계종 종단화합과 개혁을 위한 사부대중위원회’는 구립 28일 전법회관에서 ‘조계종단 50년의 성찰과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불교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업보들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우리 앞에 여전히 놓여있다”면서 “이런 위기감, 지난 100년 역사에 대한 반성에서 자성과 쇄신 결사가 시작된 만큼 이 결사는 봉암사 결사의 정신을 계승하면서도 오늘날 불교에 요구되는 시대정신으로 더욱 확대·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부대중위는 향후 활동 계획과 과거사 정리 원칙에 대해서도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각 분과별 정기 회의 및 공개 간담회 등을 통한 과거사 정리, 계승 등에 대중의 의견을 수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부대중위원회의 활동이 특정

인 위주로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명호 사부대중위원회 과거사 정리분과 간사는 “위원회 목적은 관련 인물에 대한 개별조사와 판단이 아니라 조계종단이 걸어온 200년 발자취를 공동체의 화합과 개혁이란 관점에서 성찰하는 것이므로 이 목적에 부합해 필요한 경우에만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세미나에 앞서 공동위원장 도범 스님은 “사부대중위원회는 과거를 잘 정리하고 관련 갈등을 해소하고 원만 회향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구성됐다”면서 “과거사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 대신 생산적 논의로 불교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불자 교수들 ‘지식인 포럼’ 구성한다

구립 28일 1회 불교미래포럼 상반기 창립법회 계획

불자 지식인들의 공동체가 출범한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심익섭)는 구립 28일 서울 코리어나호텔에서 ‘제1회 불교미래포럼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

창립법회에 앞서 처음으로 마련된 불교미래포럼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공식 출범하는 불자교수들의 논의의 장이다. 한국불교의 다양한 현안을 의제로 설정해 불자지식인들의 공론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불교미래포럼 창립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익섭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대학생 불자 동아리 활성화와 함께 불자 지식인들의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각 권역별로 교수신도회가 구성된 중앙신도회, 불교 각단체와 연계할 뿐만 아니라 권역별 대학을 함께 연결하고, 교수불자연합회



한국교수불자연합회는 구립 28일 서울 코리어나호텔에서 ‘제1회 불교미래포럼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

를 넘은 각계 교수들이 참여하는 자리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심 회장은 “교불련이 신도단체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불자교수, 불자지식인들이 각 현안에 목소리를 모아야 한다”며 “내년 상반기 체계를 정비해 창립법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2대 회장을 맡았던 류종민 중앙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송재운 동국대 명예교수 등 고문들과 황신숙,

김덕립 교수 등 전국 불자교수 50여 명이 참석했다. 또 이대근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 당선자와 대한불교청년회 임원진도 참석했다.

포럼에서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이 연사로 나와 ‘종교와 인권’을 주제로 강연했다. 보광 스님은 이날 “현재 종교도 인권의 사각지대”라며 “출세자를 넘어 대중생의 권리까지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평화감수성’ 찾아 양구 민통선으로!

민추본 9일 22차 월례강좌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홍, 이하 민추본)는 1월 9일 22차 월례강좌로 ‘새해맞이 한반도 평화기원 양구 민통선 순례’를 실시한다. 오전 8시 조계사 앞에서 출발해 춘천 청평사, 양구 편지봉, 을지전망대, 평화의 댐 등 둘러볼 예정이다. 이창희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의 집경지역 해설과 분단문제 관련 현장 강의로 진행된다.

민추본 측은 “남북접경지역과 민통선 지역을 둘러봄으로써 분단 현실과 통일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평화 감수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이를 시작으로 2016년도 시의성 있는 주제와 남북 간 이슈를 다루는 월례강좌를 이어갈 것이다. 불자들이 민족공동체 일원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

제5회 성도재일 기념대법회 및 ‘도전, 범종을 울려라’ 퀴즈대회

2016년 1월 10일(일) 오후 2시

해운대 벅스코 제2전시장 3층 5A홀 (신관)

1부 성도재일 기념대법회

2부 ‘도전, 범종을 울려라’ 퀴즈대회

법어 : 고산 대종사 (쌍계사방장스님)

- 대 상 : 조계종 사찰 신도로 3인 1조 구성 (청소년 1인 필히 포함) 응원상이 있으며, 참가사찰은 반드시 응원팀을 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 가 비 : 팀당 3만원(참가비는 포교기금에 사용) 신청서 및 예상문제는 다음카페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 에서 내려 받기 할 수 있습니다. 예상문제집이 필요한 사찰 및 단체는 사무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 부산시교육감 상이 주어집니다.
- 입상자 외 응원상 및 다양한 경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접수 및 문의 : 051)501-7554

◆(사)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 후원안내

CMS 후원계좌번호 : 부산은행 101-2030-7548-0 (예금주:사단법인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후원금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